

2021년 1월 15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매물 소화 과정과 중소형주 강세 파월 연준의장, “출구 전략 논의할 때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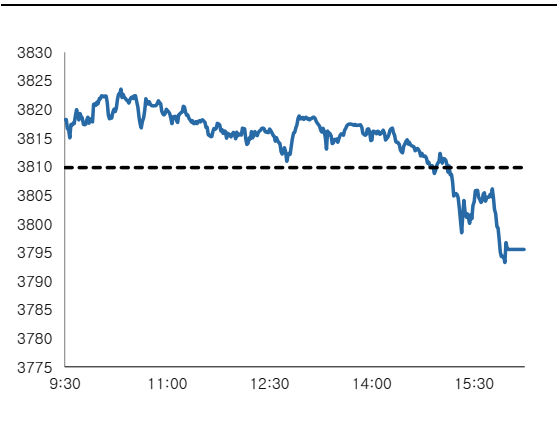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파월 발언, 금리 변화, 트럼프, 개별 업종 차별화

미 증시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며 상승 출발. 더불어 실적 발표에서 회복을 언급한 델타항공(+2.52%) 영향으로 컨택트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금융, 에너지, 반도체 업종 및 중소형주가 상승 주도. 오후 들어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잠시 출렁거린 가운데 차익 실현 욕구가 확산되고 트럼프의 샤오미 등에 대한 규제 발표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마감(다우 -0.22%, 나스닥 -0.12%, S&P500 -0.38%, 러셀 2000 +2.05%)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시장에 알려진 내용은 1 인당 2,000 달러 지급 및 주, 지방정부 지원, 세금 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인데 월말에 의회는 이를 통과 시킬 것으로 기대. 이에 힘입어 러셀 2000 지수가 2.05% 상승하는 등 중소형주의 강세가 뚜렷한 양상.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이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수 있으나 이보다 지속 여부가 관건이라고 주장. 여기에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이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시장 우려를 완화. 더불어 부진한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 고용안정과 시장 회복이 가장 중요해 출구 전략 논의할 때가 아니며 시기가 오면 연준은 명확하게 전할 것이라고 발표. 파월 발언 후 잠시 금리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인플레 용인 등의 발언과 바이든 부양책 기대 등으로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향

델타항공(+2.52%)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드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2021 년은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발표하자 상승. 이 소식으로 항공과 크루주 업종은 물론 중소형주 상승 확대. TSMC(+6.06%)는 재택근무로 인한 PC 구입과 클라우드 산업 확대, 5G 폰 판매 증가로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스 발표.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3% 상승. 이렇듯 개별 종목의 재료가 관련 업종으로 확산 된 가운데 업종 차별화 진행. 그러나 장 마감 앞두고 트럼프가 샤오미 등 9 개의 중국 기업에 대해 중국 군대와 연관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발표하자 미-중 마찰 우려로 상승 반납. 여기에 장 후반 미 국채금리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 재차 상승폭을 확대한 점도 빌미가 되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 되자 결국 하락 전환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149.93	+0.05	홍콩항셱	28,496.86	+0.93
KOSDAQ	980.29	+0.12	영국	6,801.96	+0.84
DOW	30,991.52	-0.22	독일	13,988.70	+0.35
NASDAQ	13,112.64	-0.12	프랑스	5,681.14	+0.33
S&P 500	3,795.54	-0.38	스페인	8,372.40	+0.14
상하이종합	3,565.91	-0.91	그리스	794.03	-1.02
일본	28,698.26	+0.85	이탈리아	22,637.72	-0.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항공, 반도체, 금융, 에너지 강세 Vs. 대형 기술주 부진

델타항공(+2.52%)은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회복기에 돌입 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이에 힘입어 아메리칸 에어라인(+5.86%)은 물론 보잉(+1.30%) 같은 항공 업종과 카니발(+4.08%) 등 크루즈 업종, 윈 리조트(+1.02%) 등 카지노, 리조트 업종등이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하반기 회복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최근 투자의견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엑손모빌(+3.90%)은 물론 셰브론(+2.40%), 코노코필립스(+1.79%) 등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GM(+5.75%)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강세를 보였다. 포드(+3.99%)도 동반 상승했다. 테슬라(-1.10%)는 리콜 소식과 경쟁 확대 우려로 하락했다.

TSMC(+6.06%)가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런스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퀄컴(+2.18%), 인텔(+4.04%), 마이크론(+1.74%) 등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퀄컴은 5G 매출 확대 기대로, 인텔은 CEO 교체로 투자의견 상향 조정이 영향을 줬다. 씨티그룹(+3.22%), 웰스파고(+2.81%) 등 금융주는 금리 상승 및 실적 호전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애플(-1.51%), 아마존(-1.21%)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 NVIDIA(-2.45%) 등 그동안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들은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비자(-3.58%)는 반독점 소송 여파로 핀테크 기업 인수가 무산되자 하락했다. 마스터 카드(-5.60%)도 부진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42%	대형 가치주 ETF(IVE)	+0.34%
에너지섹터 ETF(OIH)	+3.92%	중형 가치주 ETF(IWS)	+0.61%
소매업체 ETF(XRT)	+3.09%	소형 가치주 ETF(IWN)	+2.05%
금융섹터 ETF(XLF)	+0.45%	대형 성장주 ETF(VUG)	-0.97%
기술섹터 ETF(XLK)	-0.88%	중형 성장주 ETF(IWP)	-0.1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3%	소형 성장주 ETF(IWO)	+1.92%
인터넷업체 ETF(FDN)	-0.74%	배당주 ETF(DVY)	+1.54%
리츠업체 ETF(XLRE)	+0.62%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7%
주택건설업체 ETF(XHB)	+0.4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4%
바이오섹터 ETF(IBB)	+2.43%	미국 국채 ETF(IEF)	-0.23%
헬스케어 ETF(XLV)	-0.32%	하이일드 ETF(JNK)	-0.04%
곡물 ETF(DBA)	+1.10%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2.49%	Long/short ETF(BTAL)	-1.61%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36.14	+3.01%	+7.37%	+11.59%
소재	481.07	-0.38%	-0.61%	+7.74%
산업재	760.80	+0.29%	+0.17%	+1.63%
경소비재	1,337.23	-0.74%	+0.64%	+4.57%
필수소비재	678.51	-0.57%	-1.10%	-1.59%
헬스케어	1,358.91	-0.38%	-0.23%	+4.37%
금융	522.77	+0.51%	+1.66%	+10.38%
IT	2,262.98	-0.95%	-0.92%	+1.64%
커뮤니케이션	213.12	-0.83%	-3.47%	-3.81%
유틸리티	317.29	-0.37%	+0.96%	-0.40%
부동산	222.94	+0.62%	+1.48%	-1.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 소형주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3% 상승해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95.87 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옵션 만기일 영향 속 금융투자의 수급 안정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 TSMC 가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스 상향 조정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3% 상승한 점, 델타항공이 올해 하반기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을 기반으로 러셀 2000 지수가 2.05% 상승한 점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 을 하회하고 있으나 99.10 에서 99.26 으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유럽의 경제 봉쇄가 확대되고,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급증을 감안 경제 봉쇄 가능성이 부각된 점, 그리고 그동안 상승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 출회가 이어진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미 증시에서 경기 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 대형주에서 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추이 속 지수 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고용지표 둔화, 물가 상승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78.4 만건)는 물론 예상(79 만건)을 크게 상회한 96.5 만 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도 81.6 만건에서 83 만 4,250 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연말 쇼핑 시즌 종료 이후 임시직 해고에 따른 결과로 추정돼 추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 월 미국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예상(yoy -0.9%)을 크게 상회한 0.2%로 발표되었다. 수입 물가도 전월 대비 0.9% 상승해 예상(mom +0.6%)을 상회했고 전년 대비로도 예상(yoy -0.8%)을 상회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99.10 에서 99.26 으로 개선 되었다. 한국은 100.82 보다 개선된 101.17 로 4 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 을 상회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승한 가운데 중국 또한 99.83 에서 100.24 로 기준선을 상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금리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유럽의 경제 봉쇄 확대 및 미국 코로나 사망자 급증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여기에 중국의 작년 원유 수입이 7.3% 증가하는 등 중국 수요 확대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OPEC 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유지 했다.

달러화는 유로화가 프랑스, 독일 경제 봉쇄 확대로 약세를 보이자 장 초반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중 파월 연준 의장이 채권 매입 재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고 언급한 이후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로 전환했다. 다만 변화는 제한되었다. 역외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보험권 등락을 보이는 등 변화가 제한 되었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둔화로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상승 전환 후 장기물 중심으로 그 폭을 확대했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이 원치 않는 인플레이가 발생한다고 해도 대응을 할 수단이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아직은 출구 전략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언급하자 한 때 하락 전환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보다 시장은 바이든 부양책에 주목하자 금리는 상승했다.

금은 장중 달러 강세 영향으로 0.2%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무역 지표 개선 등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구리, 니켈 등은 상승한 반면, 아연, 알루미늄 등은 부진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1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57	+1.25	+5.39	Dollar Index	90.204	-0.17	+0.42
브렌트유	56.42	+0.64	+3.75	EUR/USD	1.216	+0.02	-0.91
금	1,851.40	-0.19	-3.25	USD/JPY	103.77	-0.12	-0.04
은	25.802	+0.90	-5.35	GBP/USD	1.3689	+0.37	+0.89
알루미늄	2,005.50	-0.37	-1.52	USD/CHF	0.8875	-0.03	+0.28
전기동	8,048.50	+0.49	-1.60	AUD/USD	0.7786	+0.69	+0.22
아연	2,757.00	-0.59	-4.54	USD/CAD	1.2638	-0.47	-0.42
옥수수	534.25	+1.86	+8.15	USD/BRL	5.2039	-1.95	-3.66
밀	670.00	+1.44	+4.32	USD/CNH	6.4674	+0.01	-0.06
대두	1,430.50	+1.72	+5.55	USD/KRW	1098.00	+0.26	+0.98
커피	127.35	+1.68	+5.16	USD/KRW NDF1M	1095.87	-0.19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28	+4.43	+4.80	스페인	0.059	-0.80	+1.60
한국	1.732	+1.50	+1.20	포르투갈	0.005	+0.20	+0.50
일본	0.041	+0.10	+0.20	그리스	0.679	+1.30	+7.20
독일	-0.550	-2.80	-2.80	이탈리아	0.641	+4.30	+8.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